

전문가 코칭

공급망 리스크 관리

**2018년 기업윤리 브리프스 <12월>**

(주제: 공급망 리스크 관리)



한 정 민  
BSI Group Korea 전문위원

**Q1. 지속가능한 공급망은 무엇이며, 공급망 리스크 관리와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는 원료 취득에서부터 제품 및 서비스가 생산되는 과정 전체에서 환경, 사회,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은 최대화하는 노력을 일컫는 말입니다. 운동화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운동화를 생산하는 과정에서의 환경, 사회, 경제적 영향은 다양합니다. 제품 생산 과정에서 폐기물과 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지역사회에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고, 근로 기준이나 산업안전과 관련된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의 안전이나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상의 영향을 지속가능한 경영 및 인권과 관련된 국제적인 원칙과 규범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을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와 공급망 리스크 관리의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공급망 관리의 이점을 이야기할 때 '기업의 리스크 관리' 측면을 부각하느냐 '전체 사회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부각하느냐의 차이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자의 예로는 지속가능한 구매 및 공급망 관리의 국제표준인 ISO 20400(2017)을 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제표준화기구는 해당 표준을 언급하며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를 통해 기업이 유엔(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인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의 17 가지 목표 중 빈곤 종식(목표 1), 기아 종식(목표 2), 양성평등(목표 5),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목표 8), 불평등 완화(목표 10), 지속가능한 도시(목표 11),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목표 12), 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 증축(목표 16)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공급망 리스크 관리의 측면은 소비재를 생산하는 많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자신의 생산기지로서 공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있는 요즘의 경영 트렌드를 고려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의 고용과 환경적 영향이 발생하는 곳은 주로 협력사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이런 협력사들은 글로벌 브랜드의 홍보와 명성 관리가

이루어지는 본사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협력사에서의 인권침해 스캔들이 브랜드의 가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협력사에서의 화재로 생산이 중단되기도 하는 등 기업에 직접적인 리스크로 나타납니다. 이렇듯 공급망에서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포착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공급망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활동은 전 세계에 퍼져있는 공급망을 보유한 기업에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Q2. 지속가능한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위해 우리 기업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공급망 관리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기업 간 전자상거래(B2B) 회사의 경우에는 전 세계 바이어들이 공급망의 환경, 사회, 경제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확실하게 모니터링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많은 국내 기업들이 협력사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사업의 맥락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이슈를 발굴하고 영향력의 범위 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견인하는 기업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급망이 우리나라에 위치한 경우는 공급망 리스크로 자주 언급되는 아동노동의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사내 하도급 노동자의 안전사고 같은 경우는 비교적 자주 발생하고 있는 주요 현안입니다. 반면 앞서 언급된 아동노동의 문제는 아동노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에 공급망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에는 적극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인권 문제입니다. 이처럼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위해 관리해야 하는 영역은 다양하지만 결국 우리 기업의 주요 공급망의 위치, 지속가능성에 대한 철학과 브랜드 이미지, 사회적 요구사항들을 모두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이슈를 발굴하는 것이 효과적인 공급망 관리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SO 37001 Study**

**C11. ISO 37001 이행효과와 인증리스크**

 Q. 생소하기도, 복잡하기도 했던 ISO 37001의 요구사항을 도입하고 기업의 부패방지 시스템을 구축한 후, 한국상사 ○○실장은 다음과 같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ISO 37001 이행의 실질적인 효과는 무엇이고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지난 11월 호를 마지막으로 ISO 37001에서 요구하는 Plan(계획), Do(실행), Check(성과평가), Act(개선) 단계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도입한 ISO 37001 이행효과와 인증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O 37001 이행효과]**

ISO 37001을 이행함으로써 조직이 얻는 실질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스템 이행에도 불구하고 부패 사건이 발생하여 관계 당국의 조사를 받는 경우, 조직은 그동안 부패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밟아왔던 적절한 절차와 단계에 대해 증명(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둘 수 있습니다.
2. 조직의 부패방지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도울 수 있으며,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통제조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3. 조직에 대한 경영진과 오너, 투자자, 비즈니스 관계자와 정부, 고객, 시민사회 등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4. 부패 관련 문제 발생에 따른 유무형의 비용 손실을 예방하고 줄일 수 있습니다.
5. 조직의 사업과 공급망 전체에 걸친 부패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6. 경영환경 내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조직에게 경쟁우위를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7. 반부패에 대한 조직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윤리적인 조직이라는 평판과 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ISO 37001 이행효과 모범 사례**  
마이크로소프트는 ISO 37001을 도입한 최초의 미국 회사이자 다국적 기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준법감시 부서 총괄인 데이비드 하워드(David Howard)는 마이크로소프트가 ISO 37001을 도입 및 이행한 후, 다양한 효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주요 이행효과로는 다국적 기업의 특성인 복잡한 가치사슬 내의 리스크 관리가 보다 쉬워졌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의 여러 지역과 다양한 산업군에 걸쳐 있는 사슬 내 모든 관계자들에게 적용되는 공통적이고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실제 ISO 37001 도입 후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소비자, 공급업체 및 주주의 자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으며, 세계적인 벤치마킹 기업으로 회자되면서 이미지 제고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ISO 37001 인증리스크]**

ISO 37001은 제3자 기관의 심사를 통해 인증을 받는 국제표준입니다. 그러나 ISO 37001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해당 조직이 반부패 법규를 모두 준수한다거나 부패리스크가 없고, 향후 발생 가능성이 없음을 보증해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에 인증 이후에도 반부패 관련 법규 준수 사항을 지속적으로 챙기며, 부패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제3자에게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남아있습니다.

만약, ISO 37001의 요구사항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인증을 받고 난 후, 부패 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는 오히려 주주, 이해관계자와 감독 당국 및 사법부를 기만하는 행위로 비춰져 더 큰 위험성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조직은 인증 결과만으로 부패 관련 사건·사고 등에 대한 법적 면책이나 정상참작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ISO 37001의 인증을 반부패경영의 '목표' 혹은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조직은 부패방지경영 시스템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개선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리고, 진정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ISO 37001 인증 후 기업의 CEO가 검찰에 기소된 사례**

이탈리아 국립탄화수소공사(ENI)는 2017년 1월에 ISO 37001 인증을 받았으나 약 한 달 후, CEO가 국제 부패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긴 조사 끝에 2011년 나이지리아 탐사 면허 취득 과정에서 뇌물을 주었던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부패 관련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ENI는 2017년 ISO 37001 인증을 받자, 이탈리아 최초로 자사가 인증 받았음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ENI의 CEO 검찰 기소 소식으로 ISO 37001의 부실 인증이 국제적으로 문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례돌보기**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공급망 리스크 관리**

혼자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열아홉 살의 청년은 전동차에 치여 세상을 떠났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다. 정해진 안전수칙은 2인 1조로 근무하는 것이었지만, 협력사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최저 입찰가로 서울메트로와 계약을 따낸 협력사는 인건비 절감을 통해 경영효율을 추구했던 것이다.

이 사건으로 서울시장 및 서울메트로는 엄청난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 서울메트로는 간부급 인사 총 180여 명에게 사표를 받아두고 혁신안 마련에 소극적일 시 이를 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안전수칙을 어긴 것은 협력사였지만 여론은 서울메트로에 책임을 묻은 것이다.

**◎ 공급망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 대두**

이처럼 오늘날의 소비자들은 일감을 발주한 기업이 협력사 네트워크 전반을 감독할 것을 요구한다.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기업이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지라는 것이다. 비윤리적인 산업재해와 환경오염 등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협력사 네트워크 전반에 자사의 윤리 규범을 확산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장려하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이번 사례돌보기에서는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시스템을 수립하고 실천하고 있으며, 크게 1) 협력사 행동규범 제정, 2) 이행 수준 평가, 3) 현지 근로자 교육 측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의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 협력사 행동규범 제정**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ABS, 편광판 등을 생산하는 글로벌 제조업체다. 부품 및 원자재를 공급받는 협력사 또한 전 세계에 걸쳐있다. LG화학은 원재료의 안정적인 수급과 윤리적 구매를 위해 2016년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했다. 인권, 노동, 윤리경영, 안전환경 등 10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협력사 행동규범은 LG화학이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에는 비윤리적인 방법을 통해 취득된 원자재 사용을 금지했다. LG화학이 분쟁지역의 광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이와 같은 정책의 일환이다. 분쟁지역에서 특정 세력이 민간인들을 강제로 동원해 광물을 채굴하거나 광물의 판매 수익으로 무기를 구입하고 반인륜적 행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분쟁광물의 사용 여부를 회계보고서를 통해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법안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LG화학의 협력사 행동규범은 공급망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 협력사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행 수준 평가**

LG전자는 가전제품, 가전제품, 음향기기, 핸드폰 등을 생산하는 글로벌 제조업체다. LG전자는 구매센터를 중심으로 협력사들의 윤리 규정 준수를 감독하고 있다. 거래금액의 상위 80%를 차지하는 주요 협력사들은 LG전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측정 도구를 활용해 CSR 이행 수준을 평가한다. CSR 실천이 미진한 협력사에는 거래 중단 같은 불이익이 아니라 개선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전문 인력을 파견한다. 협력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비윤리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공급망 리스크 관리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 **현지 근로자 윤리 강령 교육**

한솔섬유는 전 세계 7개국에 해외법인을 두고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의 아시아 지역과 과테말라, 니카라과의 중미 지역에서 글로벌 생산기지를 운영하는 의류 OEM(주문자위탁생산) 업체다.

한솔섬유는 글로벌 공급망의 CSR 리스크 관리를 위해 1년에 2회 해외의 자사 공장과 협력사를 방문한다. 한솔의 윤리 강령과 지역 노동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CSR 정책에 대한 전사적인 이해도를 고취하기 위해 현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또한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CSR팀을 파견해 생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갈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긴밀하게 본사와 소통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현지 법인이 위치한 현지 학교에 교육 관련 물품을 제공하고, 장학금을 지원하며 학업을 마친 학생들은 현지 법인에 취업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처럼 한솔섬유는 다양한 현장 점검 접근을 통해 현지 법인 및 협력사에 자사의 윤리 강령을 교육, 전파함으로써 비윤리적인 노동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지역 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 **글로벌 대기업의 협력사 리스크 관리 실패 사례**

글로벌 기업일수록 협력사 리스크 관리는 어려워진다. 협력사의 숫자도 많을뿐더러 현지의 노동법과 근로환경, 지역 문화까지도 파악해 대처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우수기업들일지라도 협력사 리스크 관리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며 심각하게는 주가 추락과 투자자들의 개선 대책 촉구로도 이어질 수 있다.

◎ **주식 폭락을 가져온 협력사 아동 노동**

꽤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경종을 울리는 대표적인 사례로 나이키가 있다. 1996년 <라이프>라는 잡지에는 한 소년의 사진이 실렸다. 수제 축구공 생산지로 유명한 파키스탄의 열두 살 짜리 아들이 나이키의 축구공을 만들고 있는 장면이었다. 소년은 공 하나를 만들기 위해 5각형 가죽 조각 12개와 6각형 가죽 조각 20개를 무려 1620번이나 바느질해야 했다. 소년이 받는 돈은 공 하나당 고작 100원에서 150원. 최소한 수만 원에 팔려나갈 축구공의 가격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액수였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되어야 할 축구공이 오히려 아동착취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은 미국과 전 유럽을 뒤흔들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나이키는 “우리가 아니라 파키스탄의 협력사가 아동에게 노동을 시킨 것”이라며 발을 빼려 했고, 이에 미국의 시민단체들은 나이키 불매운동을 전개했다. 나이키의 매출은 설립 이후 처음으로 절반으로 떨어졌고 주가도 37%가 폭락했다.

결국 나이키는 전 세계 공장에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갖추는 작업환경 개선에 나섰고 아동노동 금지 규정을 선포했다.

◎ **브랜드 가치를 훼손한 협력사의 열악한 노동환경**

애플은 미국 증시 시가총액 1위에 빛나는 IT업체다. 올해 1월 애플의 주력상품인 아이폰의 최대 생산기지인 대만 폭스콘 공장에서 근로자 한 명이 자살했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

나라는 것이다. 2010년에는 무려 18명이 자살을 시도했고 그중 14명이 사망했다. 비인간적인 고강도 노동환경 때문이다.

폭스콘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 이상 단순 반복 작업을 한다. 노동자 한 명이 하루 1700개의 아이폰을 조립해야 한다. 아이폰의 시장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생산량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실수하거나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동료들 앞에서 공개적인 망신을 당하기도 한다. 관리인의 허락 없이는 대화도 할 수 없고 화장실에 갈 때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노동자들은 현재 8명이 좁은 방에서 함께 생활하며 전기세, 수도세까지도 부담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폭스콘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지적했고 많은 산업 전문가들이 이에 동조하여 소비자들에게 애플 불매운동을 제시했다. 여론의 악화를 우려한 애플의 기관투자자들은 협력사 직원들의 자살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공급망 환경 개선을 요청했다. 2014년 애플의 주총에서는 기관투자자들이 지분을 모아 기업 내 인권정책을 검토하는 인권위원회 설치를 주주제안 형식으로 상정하기도 했다.

◎ **공급망 리스크 관리는 지속가능경영의 선결 조건**

폭스콘 노동자들의 월급은 약 400달러(약 45만원)다. 한 달 동안 일해도 아이폰 한 대를 살 수 없다. 서울메트로에서 용역업체로 옮겨간 공기업 출신의 전직자들은 손쉬운 일만 맡으면 서도 400만 원 가량의 고임금을 받았다. 반면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이 시간에 쫓기며 일했던 비정규직 스크린도어 수리공의 월급은 144만 원이었다.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해도 소비자이자 대중은 이러한 상황이 무언가 잘못됐다며 바뀌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오늘날의 온라인 환경에서 소비자 여론은 불매운동을 확산시킬 수 있으며 정부에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정부는 각종 규제로 기업의 경영활동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공급망 내 협력사의 비윤리적인 생산 공정을 방지한다면 이를 방조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공급망 리스크 관리는 어려운 일이다. 인력과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그러나 지속가능경영을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시장은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한 책임을 완제품 브랜드에도 묻고 있다.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만큼 생산 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것. 그것이 지속가능경영을 견인하는 선결 조건이 아닐까.

\*\*참고\*\*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525315>  
<https://news.joins.com/article/22136716>  
<http://www.itworld.co.kr/news/73975>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260426>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11109202421657>  
[https://ko.wikipedia.org/wiki/%EA%B5%AC%EC%9D%98%EC%97%AD\\_%EC%8A%A4%ED%81%AC%EB%A6%B0%EB%8F%84%EC%96%B4\\_%EC%82%AC%EB%A7%9D\\_%EC%82%AC%EA%B3%A0](https://ko.wikipedia.org/wiki/%EA%B5%AC%EC%9D%98%EC%97%AD_%EC%8A%A4%ED%81%AC%EB%A6%B0%EB%8F%84%EC%96%B4_%EC%82%AC%EB%A7%9D_%EC%82%AC%EA%B3%A0)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1980962&plink=OLDURL](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1980962&plink=OLDURL)  
<https://www.ajunews.com/view/2018061218295046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32&aid=0002703280>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1912>  
<http://news.donga.com/3/all/20150930/73917077/1>  
<http://heri.kr/review/147272>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12987>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0052496741?nv=o>

## 윤리연구소-인사이트 +

### KT, 협력사 CSR 리스크 관리

세계 경제 최신 동향은 IT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국경제의 원동력은 여전히 제조업에 있다. 그리고 제조 분야 대기업 생산량의 60~70%는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공급망으로부터 나온다. 공급망의 수준이 곧 대기업의 수준이 된 셈이다.

최근 소비자 여론은 공급망 관리의 범위를 물량 공급이나 품질 유지 등의 생산관리 차원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기업의 관리·감독이 없다면, 사실상 대기업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는 국내외 중소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자본과 정보력 등을 이유로 환경보호, 노동법 준수, 업무환경 개선 같은 사안에서 단기적 재무성과 위주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기조가 확산되면 환경오염, 실업, 독과점, 산업재해, 아동 착취 등 공동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퍼질 수 있다. 사회가 흔들리면 기업의 지속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다. 결국 공급망 CSR 관리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인 것이다.

국내외 많은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KT의 경우, 2012년에 협력사 지속가능경영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2017년에는 이를 개정·재배포했다.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가능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함이다. 이번 인사이트+에서는 KT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공급망 관리 전략 및 지속가능성 구축과 관련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팁을 제공하고자 한다.

#### ◎ KT 협력사 지속가능경영 가이드라인 소개

협력사 지속가능경영 수행 기준은 KT에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전 세계 협력사와 하도급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며 1) 사업 수행 원칙, 2) 환경 경영,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역할, 4) 제품의 지속가능성 등 네 가지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

첫째, 사업 수행 원칙 항목에서는 기업의 지배구조, 윤리경영, 지속가능경영, 하도급업체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KT는 협력사에 이와 관련된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모범 사례를 실천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을 어기거나 가격담합, 부정부패 같은 중대한 협력사 윤리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KT와의 거래가 중단될 수도 있음을 적시했다. 외부의 이해관계자와 직접 소통하는 구매, 영업 담당자를 위한 윤리적 행동지침을 명문화하고 반부패를 위한 내부 제보 시스템의 도입도 권장하고 있다. 또한 KT는 협력사에 윤리적 구매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망간, 게르마늄, 탄탈륨 등은 분쟁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데, 문제는 해당 지역의 특정 세력이 민간인들을 착취해 이 광물들을 채굴하고 있는 것이다. KT는 이러한 제품(분쟁광물)을 구매하지 말 것을 협력사에도 요구하고 있다.

둘째, 환경경영 항목에서는 기후변화와 물 부족 등 인류의 영속성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지

양하고 환경 보전에 기여할 방안들을 제공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환경보호를 비재무적 측면이 아니라 비용 문제, 즉 재무적 측면으로 접근했다는 것이다. 천연자원은 유한한데 글로벌 시장은 갈수록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면,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향후 중요한 기업 경쟁력이 될 것이라는 관점이다. 이를 위해 KT는 환경 법규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환경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협력사와는 거래가 중단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수집·보고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외에도 독성 화학물질 사용을 지양하고, 수자원 보호를 위해 물 사용량과 폐수 오염도를 측정, 관리할 것을 권장하며,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 분리 설비를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셋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역할 측면에서는 인권, 근로 기준, 노동권 등을 준수, 기업의 명성 리스크를 낮추고 내부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T는 근로 계약, 노동권, 공정한 보상 등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이와 같은 노동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협력사와 거래를 중단할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 또한 KT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아동 노동 금지, 차별 금지, 비자발적 근로를 금지하는 등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안전경영시스템에 대한 외부인증을 받을 것을 권장하며 정기적으로 안전교육과 안전평가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산업안전에 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넷째, 제품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해 협력사들이 제공하는 제품 및 장비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지속가능성 효율을 평가하고 있다. KT에 납품되는 물품 및 장비는 직원과 고객, KT가 관리하는 인프라와 그 인근의 안전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KT는 환경 영향을 낮추기 위해 협력사가 자사 제품의 생애주기를 분석, 자재 및 자원 효율성을 향상시켜 비용을 절감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제품을 디자인하는 시점부터 분해 및 재활용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수명이 끝난 제품은 협력사가 KT로부터 회수해 가는 폐기제품 회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것도 권장하고 있다.

◎ 가이드라인의 적용과 평가

KT는 정기적으로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평가 설문을 시행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한 공급망 지속가능경영 추진 기본 원칙을 협력사들이 잘 실천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다. 평가 설문 결과는 분석 과정을 거쳐 협력사별 지속가능성 점수로 환산된다. 이렇게 산출된 점수는 입찰 및 연간 평가 시 협력사 경영 역량을 평가하는 주요 항목으로 통합되어 활용되고 있다. 협력사 평가에 지속가능경영 성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KT는 지속가능경영의 실질적인 실천을 위해 협력사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지속가능경영 설문이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할 것, 실무 담당자 및 사업 시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것, 지속가능경영 정보의 왜곡이나 거짓 보고를 방지하고 보고 내용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내부 제보 시스템을 수립할 것 등이다. 또한 지속가능경영 활동 및 성과가 미진한 협력사에는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개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가이드라인에 명시하고 있다.

◎ 공급망 CSR 관리,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필수조건

UN, OECD, ISO 표준 등 초국가적 기관에서는 CSR 논의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세계의 각국 정부도 관련 정책을 도입하고 강제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CSR 이행 여부가 기업 가치를 측정하는 중요한 잣대로 자리 잡았고, 최근에는 중국도 적극적으로 CSR을 제도화하고 있다. 내수 시장이 작은 한국경제 특성상 이와 같은 흐름은 심각하게 인지하고 대처해야 할 시장 환경의 변화다.

이미 국내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는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협력사 CSR 수준을 맞추지 못해 거래가 중단된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KT의 협력사 지속가능경영 가이드라인은 우리 기업들이 참고할 만한 사례다. 세계 시장에서 공급망 CSR은 권장 사항을 넘어 비즈니스를 성사시키기 위한 계약 조건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http://www.kidd.co.kr/news/199922>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31XXXX21023>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id=2017061800020>

<역사 속 사례>

품위와 신용으로 상단(商團)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한 개성상인

조선은 사농공상(士農工商) 중 상업을 가장 천대했던 유교 국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상권을 장악하고 국제시장에서도 두각을 드러낸 상인 집단이 있다. 바로 개성상인이다. 상거래를 억압하던 사회에서 개성상인이 전문성을 가진 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품위와 신용을 중시했던 철학, 즉 상도에 있었다.

◎ 상거래 도덕과 철학을 명문화

조선왕조는 신왕조를 개창한 이후 개성 주민들을 한양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새 왕조에 반대했던 고려 지식인들과 고려 왕족 후계자들은 이 정책에 따르지 않았다. 조선왕조는 개성에 잔류한 세력에 토지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들은 생계를 위해 상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 왕실 출신 지식인들이 주류였던 개성상인들은 장사에 '품위'와 '신용'이라는 철학을 심었다. 그리고 이를 지킬 수 있는 인품을 가진 인물만 계원으로 선발했다. 지금으로 치면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만 가입할 수 있는 멤버십 클럽인 셈이다. 나아가 이들은 공정한 상거래를 위한 독특한 기록 방식을 개발해 상용화했다. 서양보다 2세기나 앞선 복식부기, 송도사개치부법(松都四介置簿法)이다.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자산, 부채, 자본의 움직임을 기록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던 것이다. 이는 합리적인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품위와 신용을 바탕으로 한 철학에서 비롯된 성과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거래를 위해 개발한 복식부기, 상단에 소속된 계원 전체의 상생을 꾀했던 행상. 둘 다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생존과 발전을 도모한 결과다. 개성상인이 국가, 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원천은 바로 여기에 있다. 다 함께 가는 것은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발전을 위한 길이다.

**\*참고**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01656>

<http://egloos.zum.com/yakcho/v/5486601>

**윤리연구소-보고서 리뷰**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와 성과**

일반 대중들에게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란 꽤 생소한 단어다. 이번 보고서 리뷰에서는 대한경영학회지에 실린 이수열, 이준겸 교수의 「글로벌 공급망의 지속가능 공급망 관리와 성과: 베트남 수출중심 공급사를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 논문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형태의 구매사가 아닌 중소기업의 협력사(공급사)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공급망 관리의 필요성을 협력사 관점에서 파악해 보고자 한다.

**◎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란?**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란 일반적으로 공급망 관리에 있어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에 대한 리스크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구매사-공급사(협력사) 관계 내 이와 같은 리스크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리뷰에서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를 환경 성과와 사회 성과,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환경 성과 차원**

환경 성과 차원은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위험을 줄이고, 공급망 전체에서 발생하는 제품, 공정, 경영에서의 환경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공급망 내 환경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협력사 평가 항목에 환경 기준을 통합하는 것이다. 이 영역은 협력사의 활동에서 환경 측면을 평가하여 피드백을 제공하고, 협력사가 자발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환경 기준을 맞추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실제로 전 세계에 걸친 공급망을 보유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환경 구매 시스템을 수립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협력사의 환경 기준 준수 정도에 따라 구매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일컫는다. 이 같은 시스템의 일환으로 공급망 내 협력사들이 유럽연합의 환경규제인 유해물질제한 지침(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 혹은 전기·전자 폐기물에 대한 WEEE 지침(Waste Electrical & Electronic Equipment)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거나, 환경경영시스템인 ISO 14001 인증을 받기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협력사의 환경 성과 개선은 협력사 평가 사항 변경만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규모가 큰 구매사에 비해 일반적으로 공급업체인 협력사들은 규모가 비교적 작고, 정보력이 낮으며 환경 이슈를 다루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구매사는 여러 가지 지원 활동을 통해 협력사가 장기적으로 환경 역량을 높여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 활동에는 환경 교육과 훈련, 정보 제공, 기술적 지원 및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지원 등이 포함된다.

**사회 성과 차원**

사회 성과 차원은 공급망 내 위치한 협력사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와 위험을 줄이고, 공급망 전체의 사회 성과를 높이기 위한 구매사 및 협력사의 활동 전반을 의미한다. 공급망 내 사회 성과를 높이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윤리행동

강령(code of conduct)를 설정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 윤리행동 강령은 일반적으로 아동노동, 강제노동, 인권, 다양성, 종업원의 보건 및 안전, 지역사회에의 공헌 등의 항목을 포함한다. 제 3자 인증 프로그램인 SA8000 및 자발적 준수를 위한 ISO 26000 국제 표준 등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사회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 성과 차원과 유사하게 구매사가 위와 같은 사회 성과 항목, 표준 등을 협력사 평가에 반영하기도 하며, 훈련 및 교육 제공,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관련 자문 등을 포함한 지원 방식이 병행되기도 한다.

◎ **협력사들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성과(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이와 같은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가 구매사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필요한 상품을 안정적으로 조달받아 조립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사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함으로써 기업의 평판 및 이미지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협력사가 자사 및 하청 업체의 환경 및 사회적 차원의 지속가능성까지 고려한다고 해서 실제 이들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는 쉽지 않다. 협력사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구매사들이 바라는 지속가능한 제품과 생존은 담보되지 않는다. 즉 협력사들 역시 이러한 활동이 경영 성과에 도움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논문의 저자들은 협력사의 지속가능 노력(환경 및 사회 성과 이슈를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들)이 협력사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동남아시아(베트남을 중심으로) 협력사들의 경우를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는 베트남 수출중심 협력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수행하고 통계분석 및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는 협력사에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 성과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주 물량 확대 효과**

가장 먼저, 협력사 입장에서 자사 및 하청 업체의 지속가능성 관리를 시행하면, 구매사가 요구하는 일정 수준의 환경, 사회 성과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이는 위험 감소를 보장하기 때문에 구매사와의 신뢰 구축은 물론이고, 더 많은 수주물량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생산성 및 품질 향상 효과**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 윤리적이고 사회책임형 경영방향을 이행한다면, 협력사 및 하청 업체 내 종업원의 인권과 안전이 강화되며 사기진작, 동기유발, 조직몰입을 통해 생산성 증가 및 품질 향상이라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는 협력사의 환경, 사회 성과뿐 아니라 품질, 원가, 납기, 유연성과 같은 생산 성과 및 수주물량 확대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경제 성과 개선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우리 기업에 중요한 실무적 시사점**

이 같은 결과는 환경과 사회 차원의 다양한 이슈를 관리하는 것을 비용으로 단정 짓는 구매사와 협력사를 포함한 우리 기업에 몇 가지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 번째로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는 구매사와 협력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상

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협상력을 가진 구매사의 노력이 선행되는 가운데 협력사 역시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자사의 역량 강화를 통해 공급망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두 번째로는 협력사는 구매사의 환경, 사회 성과 요구를 긍정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부적으로 환경, 사회적 대응 역량을 높일 경우, 구매선을 넓혀 경제적 성과 개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 이수열 & 이준겸, 2015, 「글로벌 공급망의 지속가능 공급망 관리와 성과: 베트남 수출중심 공급사를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 『대한경영학회지』 제28권 제2호(통권 124호): 453-468.

뉴스클리п

국내 동향

1.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주간 실시

국민권익위원회가 UN 반부패의 날(12.9)을 맞이해 반부패·청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제고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반부패 주간(12.3.~14.)을 실시한다. 반부패 주간 동안에는 다양한 행사 및 정책 논의를 위한 컨퍼런스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주요 행사로는 반부패 창작 연극 공연, 반부패·청렴 특집 '도전 골든벨' 등이 방영될 예정이며, 국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청렴 캠페인, 청렴콘텐츠 공모전 등도 실시된다. 더불어 청렴 컨퍼런스, 국제 포럼 및 청탁금지법 워크숍 등을 통해 주요 반부패 정책성과와 과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같은 반부패 주간은 국민들에게 어렵고 딱딱한 주제가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의 반부패·청렴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표를 활용한 국내 사회책임투자(SRI) 시장의 빠른 성장세

국내 사회책임투자(SRI)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들의 SRI에 대한 관심 역시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 최종안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표를 활용할 것을 밝혔으며, 우정사업본부도 SRI 펀드 투자를 위한 위탁운용사를 선정하는 등 다양한 움직임들이 일고 있다. 현재 국내 SRI 시장 규모는 7조 3600억여 원으로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으나, 자산이 지난해보다 세 배 이상 늘어날 정도로 급속도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SRI는 재무 정보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가치도 평가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변동성이 적은 것이 강점이다. 또한 ESG 상위 기업의 수익률이 하위 기업에 비해 크게 높다는 점에서 ESG 등급이 장기적인 자산 배분에 사용할 만한 지표라는 평가이다. 시장에서의 비재무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업의 비재무 가치 관리 역시 경영의 화두가 되고 있다.

\*참고 - 한국경제, 11.09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10906301>

2. 동물윤리를 지킨 '착한 룡패딩' 생산

동물 보호 및 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이 커지며, 동물윤리를 지켜 생산한 '착한 룡패딩'이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8일, 홀쇼핑 채널인 GS샵은 윤리적인 방법으로 채취해 만든 다운 제품에 부여되는 'RDS(Responsible Down Standard Certified)' 인증을 받은 룡패딩의 판매율이 매우 높으며, 매진 사례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RDS는 살아있는 조류의 깃털을 강제로 채취하는 등의 비윤리적인 동물 학대행위를 하지 않고, 깃털 생산부터 완제품 생산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윤리적인 과정을 따름을 확인하는 글로벌 인증이다. GS샵은 반려동물의 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동물 윤리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점과 섬유 기술의 발달로 인조 충전재들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착한 룡패딩의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참고 - 연합뉴스, 11.08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8/11/08/0706000000AKR20181108067100030.HTML>

해외 동향

1. 유럽연합, 인공지능(AI) 윤리지침 초안 마련, 연말까지 최종안 확정 계획

유럽연합(EU)은 인공지능(AI)에 의한 인종, 성차별 등을 방지하기 위해 AI 윤리지침 초안을 마련했다. AI는 인간이 입력한 과거 데이터를 학습한 후 점차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만큼, 인종이나 성별 등에 편향된 분석과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초안은 기업의 AI의 판단 과정에 대해 기업이 설명을 제공할 책임 부과, AI 구조 및 운용에 대한 윤리 심사기구 설치, 윤리적 AI 인증제도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AI의 분석, 판단 과정을 투명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EU는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지침이 정해지면 다른 나라의 관련 규제 및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 경향신문, 11.0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11061544001#csidxdd61264d7be7bea69f711566b0bffe8d](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11061544001#csidxdd61264d7be7bea69f711566b0bffe8d)

2. 국제 벤치마킹 연합, 대형 해산물 관련 회사들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의 기여도 측정

국제 벤치마킹 연합(World Benchmarking Alliance, WBA)은 전 세계 30개 대형 해산물 관련 회사들의 지속가능한 해산물 생산 및 교역에의 기여도를 측정하겠다고 밝혔다. 평가는 오는 12월에 시행될 예정이며, 이 평가를 통해 1위부터 30위까지 순위를 선정한다. 국제 벤치마킹 연합은 아비바(Aviva), 인덱스 이니셔티브(Index Initiative)와 UN 재단(UN Foundation)에 의해 창립되었으며, 사회의 여러 섹터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기여하는 바를 평가 및 측정하는 기관이다. WBA는 해산물은 가장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식품이기에 환경, 사회 등을 비롯한 다양한 측면에서 유엔의 SDGs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참고 - Environmental Leader, 11.06  
<https://www.environmentalleader.com/2018/11/seafood-companies-assessed/>

3. 미국 대기업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용어 정의 기준 도입

12개에 달하는 미국 대기업들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라는 용어에 더욱 명확하고 일관된 정의를 내리고자 지속가능성회계기준이사회(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SASB)가 고안한 용어 기준을 도입했다. 이는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이 투자자들에게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된 점과 에너지 사용 및 종업원들의 안전을 비롯한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들이 재무적 부문에 영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참여 기업에는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 켈로그(Kellogg's), 나이키(Nike)와 머크(Merck) 등이 있다.

\*참고 - Financial Times, 11.07  
<https://www.ft.com/content/1cb597c4-c27b-3900-8c25-4dba83d4c54a>

## 국내·외 행사소식

### <국내행사>

#### 윤경SM포럼

한국의 지속가능경영·윤리경영 확산과 지속가능한 경쟁력 고취를 위한 다자간 포럼

주최 윤경SM포럼 사무국

일시 2018년 12월 20일

장소 서울, 롯데호텔

[http://www.ips.or.kr/02\\_02.php](http://www.ips.or.kr/02_02.php)

#### 제5회 Porter Prize for Excellence in CSV

우수 CSV 실천 기업 및 기관을 발굴하여 미래경영 패러다임으로 부상하는 CSV에 대한 관심 환기 및 확산 촉진

주최 CSV 포터상 사무국

일시 2018년 12월 5일(수)

장소 서울, 신라호텔

<http://porterprize.co.kr/>

### <해외행사>

#### The 9th Sustainable Innovation Forum 2018

순환 경제, 에너지 전환, 기후 금융 등의 이슈와 관련된 각 섹터의 역량 강화, 네트워킹 논의

주최 UN Environment Programme (UNEP) and Climate Action

일시 2018년 12월 9일 ~ 2018년 12월 10일

장소 Katowice, Slaskie, Poland

<http://sdg.iisd.org/events/sustainable-innovation-forum-2018/>

#### 2018 Corporate Philanthropy Conference

기업 내 윤리, 사회적 공헌 관련 담당자들에게 사회적 영향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아이디어, 전략 및 툴 제공

주최 Conference Board, Inc.

일시 2018년 12월 4일 ~ 2018년 12월 5일

장소 New York, New York, USA

<https://www.conference-board.org/conferences/conferencedetail.cfm?conferenceid=2977>

### 청탁금지법 Check!

#### <변화하는 대한민국>

#### 학교급식업계 내의 청탁 금지 및 청렴도 향상에 대한 논의

최근 학교급식업계는 학교급식 영양사의 청탁 비리 및 식중독 음식 유통 문제 등의 각종 사건·사고의 중심에 있었다. 특히 학교 급식 청탁 비리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다방면에서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전 서부교육지원청은 학교급식 청렴도 향상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교육청 담당자와 영양사들이 청탁금지법 및 2019년 청렴도 향상 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교육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토의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다 청렴한 국가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행된 청탁금지법 관련 노력들은 학교급식 업계 역시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다.

**지식 1G**

**분쟁광물**

**#정의:**

콩고나 우간다 등 지역을 비롯한 아프리카 분쟁지역에서 전쟁 및 범죄를 동원하면서 생산되는 천연 자원. 탄탈륨, 망간, 게르마늄이 대표적이며 자동차, 휴대폰, PC 등에 들어가는 부품의 주요 원료로 쓰인다.

**#사회적 문제:**

테러리스트들이 분쟁광물의 유통경로를 장악한 뒤 광물 거래로 올린 수익으로 무기를 구입하고 민간인 강제노동, 아동 착취, 살인, 성폭행 등의 반인륜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규제:**

미국과 유럽은 각각 도드-프랭크 및 분쟁광물 규제법을 통해 기업들의 분쟁광물 사용을 금지하고 광물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여러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내 협력사들의 분쟁광물 규제 대응 여부에 따라 공급망을 교체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동향 속에서 우리 기업들 역시 발 빠르고 적극적으로 이 규제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독자에게 물었습니다.**

**Q1. 공급망 관리와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어떠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L 화장품 회사, K과장**

공급망 관리라고 하면 저희 회사와 관계된 협력사인 국내외 택배사와 본 회사의 제품을 판매해 주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또는 백화점과 같은 판매점들을 관리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로, 국내 물품 배송을 담당하는 택배사에 사회적 이슈로 인해 배송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회사 제품 판매에 당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분명 우리의 영업활동에 관련된 모든 협력사들이 톱니바퀴처럼 제 역할을 해 주는 것은 우리 기업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세하거나 우리보다 생존가능성이 약한 협력사들에게 지속가능성이라는 차원에서 어떠한 압력을 가한다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업이 먼저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착한 기업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면 공급망 관리라는 관리의 관점을 넘어 협력사들 역시 자발적으로 따라오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기업 전반의 바람직한 모습이야말로 협력사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기업의 진정한 지속가능성을 견인한다고 생각합니다.

**Q2. 귀하가 속한 기업에서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C 의류 제조사, L주임**

저희는 다수의 해외 생산 공장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빠듯한 납기일 등을 맞춰야 하는 분야의 특성상 빠른 업무 프로세스가 필수적인데, 이 과정에서 협력사 및 해외 공장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회사에서는 협력사 및 해외 공장들의 지속가능성을 살피는 부서를 중심으로 다양한 평가를 진행하기도 하고, 각 영업팀에서는 각 주문별 높은 기준의 환경, 유해물질 등을 검사하는 제3기관 오딧(audit)을 거치기도 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오딧을 통해 해외 공장의 근무 환경 등을 체크하기도 하는데요. 이 오딧에서 시행되는 평가 요소에는 공장 내 소화기의 설치 여부, 내부 시설 별 화재 시 비상문의 위치 등을 검사하는 등의 내용까지 포함됩니다. 여러 협력사와 일하고 있는 저희 회사에게 협력사의 지속가능성은 필수 요소이기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사례 응모

### 이 기업을 추천합니다

- 기업윤리 브리프스에서는 독자의견을 수렴하여 윤리경영의 우수 사례를 발굴함으로써 많은 기업들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소개하고자 합니다.

- 하단의 담당관실 메일주소를 통해 추천하고 싶은 우수 기업과 관련 내용을 보내주세요

## 독자퀴즈

Q. 다음 중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업의 활동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 ① 협력사 행동규범 제정
- ② 현지 근로자 대상 윤리 강령 교육
- ③ 현지 근로자 대상 브랜드 가치 교육
- ④ 협력사 CSR 이행 수준 평가

● 지난 호 정답 : ② 번

● 정답 제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jykim5@ips.or.kr)

\* 성함, 주소(상품권 수령지), 연락처를 보내주세요(22일까지)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지난 호 정답자는 김동혁 님, 이경학 님, 최선호 님, 이상훈 님, 김정현 님 입니다.

축하드립니다!!